

# 호스피스와 의사

김민정(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부회장)

지 난해 말 나는 40대 의 두 분 의사 선생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 한 분은 대학 병원에 입원 중이셨는데 위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어 있었고 그로인해 통증이 심하여 표정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환자의 통증이 너무 심하여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몰핀 주사를 처방했는데 한 앰플의 5분의 1인 2mg을 주사맞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괴로워 하시다가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한다. 돌아가시기 한달 전까지 개업 의로서 열심히 일하셨고 그날까지도 통증과 싸우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가슴아팠다.



다른 한 분 역시 힘들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신장암에 걸려 시골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통증이 심하여 대학병원에 연락하니 특별히 해 드릴 것이 없으니 집에서 안정하시라는 것이었다. 환자는 회한과 통증으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럴 때 호스피

스 전문의사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호스피스가 잘 마련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호스피스 병동 내 환자들은 한 마디로 만족한 얼굴 모습이었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암 진단시 25~50%에서 있고, 진행한 암에서는 75%의 환자가 통증을 경험한다. 통증 완화 방법으로 98%에서 통증조절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중 85%

는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이 아닌 몰핀으로 진통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완화의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인 것이다. 암전문이가 호스피스 정신을 가지고 환자를 대할 때 설사 항암치료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환자와 더 자주 만나고 싶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 한다. 혼자 아프고 혼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의사가 누구를 위한 직업인인가 생각할 때, 말기암 환자는 가장 절실한 소비자로서 당연히 호스피스 전문의는 양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사 중에서도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사에게 호스피스란 무엇을 주는가? 크나큰 자유와 이룩한 기쁨이다.**  
**호스피스란 있으므로**  
**암 전문의는 자신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보다 성숙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게된다.**

부담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암 전문의는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더 이상 생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호스피스 전문의에게 상담하여 그 환자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고통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암 전문의도 혼자서 그 무서운 죽음의 위력을 이길 수 없다.

마침 이번 7월에 한국에서도 암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내과의, 간호사 등이 주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창립되므로 그동안 호스피스를 위하여 애써오셨던 간호사, 원목자, 자원봉사자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발전될 것이 기대된다. 오랫동안 몇몇 뜻있는 분들이 호스피스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으나, 환자 한분 한분에 대한 정성이 덜해질까 염려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스피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될 정부당국이나 보건소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호스피스는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국민의료로서 확대되어야 하고 그 시행함에서

팀을 이루어 서로 도와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의사에게 호스피스는 무엇을 주는가? 크나큰 자유와 이룩한 기쁨이다. 호스피스란 있으므로 암 전문의는 자신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보다 성숙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게된다.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항암요법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호스피스란 있으므로 의사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의사는 그때부터 환자를 위하여 간호사,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원목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세상 마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호스피스는 장소가 아니라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 사회에 부활의 의미로 대두된 것이다. 고통을 고통스럽게 참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참는 것이다. 그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는 부활의 기쁨을 같이 맛보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의학이 새 의료로서 자리잡게 될 때 다른 의학도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았다.

